지구 촌구석 떠나 출세하라

(마태복음 16:5~20)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지구 촌구석 떠나 출세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지구 촌구석 떠나 출세하라'
60~70년대에 활동하신 김용만 가수의 "회전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 사람 없어 비워 둔 의자는 없더라 /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 아아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도 무시하고 고난의 길을 참으며 걸어왔는데 돌아보니 참으로 억울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출세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풍조가 조금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서울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못 가면 자식이라도 출세를 위해 서울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출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첫 번째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출세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런데 두 번째 뜻을 보면 “숨어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했고, 세 번째 뜻에서는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출세의 의미를 종합해보자면 교인은 지극히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출세는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열 명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서 이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출세로 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존재감을 높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바닥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큰 물고기는 큰물에서 논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큰 무대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들 서울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출세하기를 거부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으나 그들을 뿌리치십니다.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월하신 분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자면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요청을 뿌리치신 이유는 지구 촌구석이 예수님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곳을 찾고 계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은 최고로 화려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화려함이 곧 거룩함입니다.

또한 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국을 체험하고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각이 되어주셔서 마음으로 보고 느낀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이 감각기관이 되셔서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 느낌을 표현할 때에 인간의 언어로는 무지개와 보석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화려한 천국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천국의 화려함을 체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구 촌구석에서 부귀영화로 여기는 일들이 결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이나 왕궁이 아무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구 촌구석에서 열두 제자를 모아놓고 동네 이장 노릇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서 예수님은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화려함과 천국의 크기와 천국의 좋음을 체험하신 예수님에게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열두 명 있는 섬의 이장님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겸손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들을 멀리하심으로써 겸손을 꾸미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천국을 아셨기에 지구 촌구석에서 임금 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를 아시고 거부하신 것입니다. 출세를 바라는 사람들이 큰물에서 놀고자

촌구석을 떠나 서울을 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추종자들과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십 일 만에 곧장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자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화려함을 알고 계셔서 이 지구 촌구석에서 아무것도 갖고자 하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써 천국의 화려함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지구 촌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서울로 진출시키는 중개인이라도 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구 전체에서 어떤 것도 바라시지 않는 마음이 되신 이유는 바로 천국의 좋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을 데리고 가시고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세를 하고 싶다면 큰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이 세상 지구 촌구석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실패자로 여깁니다. 최고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거지 나사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대비되는 존재로 지구 촌구석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부자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큰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섬마을에서 이장 자리라도 맡게 된다면 그것이 족쇄가 되어 섬을 떠나기는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나사로는 지구 촌구석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룬 것이 없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촌구석에서 실패자가 될 수록 더 큰물인 천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은 쉽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큰물로 알 때에야 촌구석을 작은 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시골에서 이장 자리를 주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오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화려함을 가장 좋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좋음의 상태가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진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우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Caesarea Philippi) 지방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말 그대로 시저 즉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로마 군인들이 관장하는 본부가 있던 지역입니다. 즉 이곳은 선진국이었던 로

마 제국의 분위기가 가장 진하게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출세를 원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출세란 로마로 가는 것이고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분위기가 만연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출세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세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의역해보자면 "주님은 노는 물이 다르십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크게 놀라워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제법 큰 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를 촌구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노는 물이 다르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물이신 천국에서 오셨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천국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이끌고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물인 천국에서 이름을 알리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야 말로 교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바로 그 독생자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고자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실체 없는 허상이 아닙니다. 마음은 '나'라는 인격의 본체입니다. 오히려 육체가 일시적으로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마음이 영원한 것에 비하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격의 실체인 마음을 가장 큰물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꿰뚫은 베드로의 고백을 대단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교인의 출세를 막는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촌티를 풀풀 풍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대적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서기만하면 합심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에게는 지구 촌구석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로써의 천국과 천사와 부활도 인정하였으나 마음은 어디까지나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로써 세상에서의 출세에 노골적으로 열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되고 싶고 갖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어 하는 모든 가치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입으로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흉내 내는 이유도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못 마땅하게 여기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로 비난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국한된다고 보았기에 천국이나 천사나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 땅의 가치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결국 마음은 땅을 향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누룩 즉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지구 촌구석에서 출세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은 예수님과 같이 최고의 화려함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화려함이 아니면 이 땅의 화려함을 상대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 교인입니다.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 촌구석이 아니라 천국으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교인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부자는 지구 촌구석에 좋은 것이 있다고 믿는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지구 촌구석에서는 거지였으나 천국에서 출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을 경험해 본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서 표현된 천국의 좋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고 화려하기에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일까요? 천국의 좋음을 아시는 예수님께는 왕궁이나 마구간이나 똑같이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표현된 천국의 좋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노는 물을 바꾼 교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출세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이름이 나타나는 출세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구원은 천국에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지구 촌구석에 있는 최고의 화려함조차 돌덩이처럼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천국의 화려함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출세한 진짜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의 화려함의 단편을 보여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교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로마의 화려함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한 천국에서

주님이 오셨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구 촌구석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지구 촌구석을 떠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우편 예수님의 자리에 모인 자들이 바로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의 몸이 모일지라도 교회는 아닙니다. 마음이 천국에서 출세한 사람들, 지구 촌구석에서 떠나 노는 물을 바꾼 사람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교인이며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새해는 지구 촌구석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근절시키는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 촌구석에서의 출세를 뿌리째 뽑아내고, 내가 출세를 못했다고 자녀가 출세하기 바라는 마음도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지구 촌구석에서 실패자가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음으로써 노는 물을 이 지구 촌구석에서 천국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언제나 천국에서 노는 천국 출세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형편일지라도 아무 문제없음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